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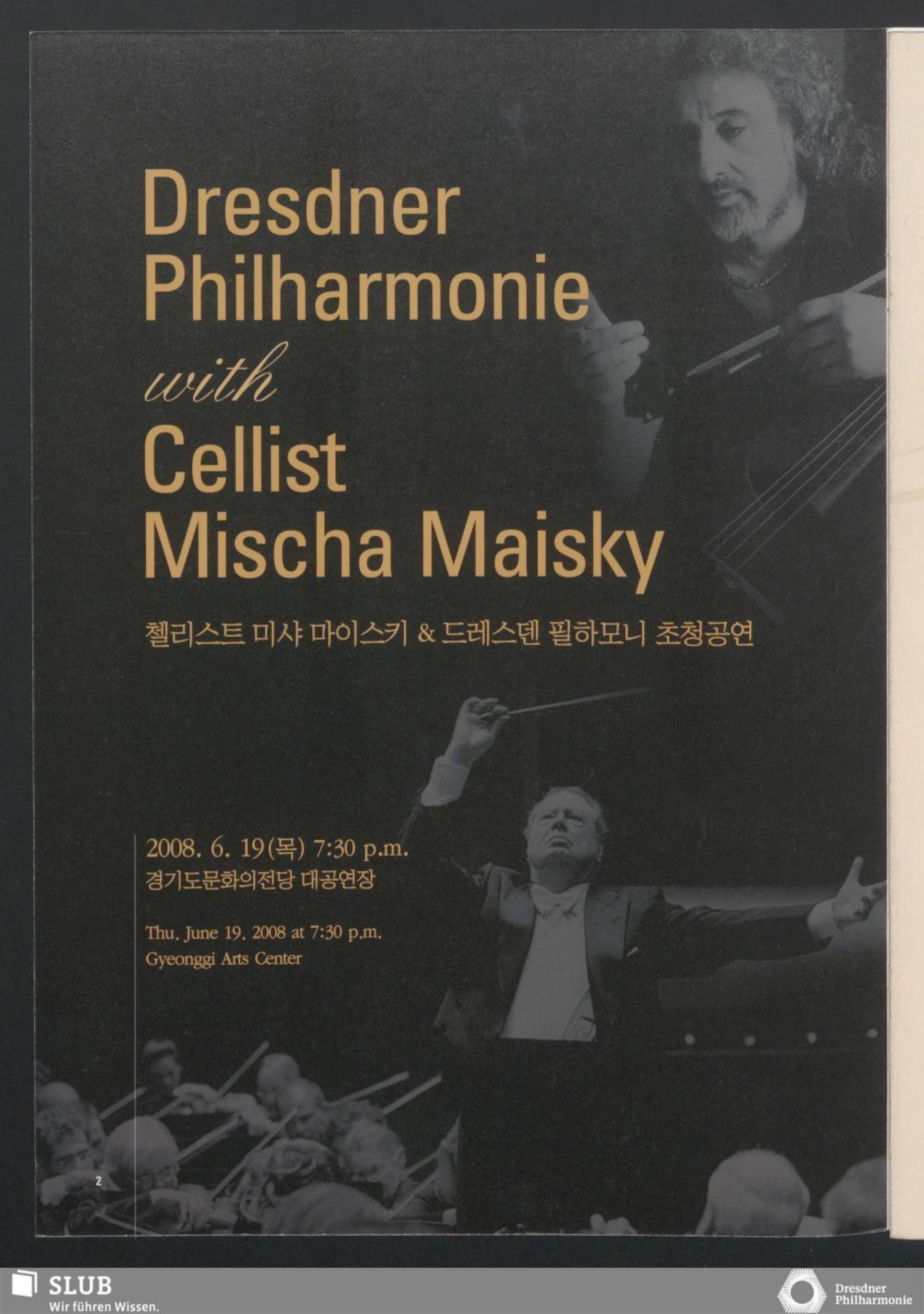


# Dresdner Philharmonie with Cellist Mischa Maisky

##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초청공연



지휘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코스  
(Rafael Frühbeck de Burgos)



# Dresdner Philharmonie

*with*

# Cellist Mischka Maisky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초청공연

2008. 6. 19(목) 7:30 p.m.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Thu, June 19, 2008 at 7:30 p.m.  
Gyeonggi Arts Center



질푸른 녹음과 클래식 향기가 어우러지는 6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가가 연주하는 작품은 언제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감동을 느끼게 하며 한동안 그 전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최고의 공연으로 관객 여러분께 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로,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서유럽이 모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2007년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마태 수난곡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올해 드보르작, 베토벤 등 정통 관현악 프로그램으로 관객여러분을 만납니다.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첼로의 거장이며 훌륭한 성악가의 열창을 연상시키는 매력을 지닌 미샤 마이스키의 협연으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의 진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 일흔 다섯의 나이로 가장 원숙한 형태의 지휘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테 부르고스, 거장 첼리스트 시대의 마지막 주자 미샤 마이스키의 음악 혼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관객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동을 전해 줄 것입니다.

관객과 호흡하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준 높은 공연문화의 보급을 위해 앞으로도 국내외의 우수한 단체 및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관객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의 시설개선과 공연관람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준비하는 세계 명품공연 초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

Dresdner Philharmonie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드레스덴 필하모니 초청공연

Cellist Mischka Maisky

  
P R O G R A M

베버 | '오베론' 서곡

*Weber\_ Overture of Oberon, J.306*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Dvorak\_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Allegro*

*Adagio, ma non troppo*

*Allegro moderato*

**INTERMISSION**

베토벤 | 교향곡 5번 '운명'

*Beethoven\_ Symphony No 5 in c minor Op.67*

*Allegro con brio*

*Andante con moto*

*Allegro*

*Allegro*

\*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사랑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니(Dresdner Philharmonie) 내한공연

2007년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의 '마태 수난곡' 반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이번에는 베토벤, 드보르작 등 정통 관현악 프로그램으로 한국 팬들과 만난다. 특히 수원에서는 처음으로 올려지는 공연으로 경기도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의 지휘봉은 모던 해석과 젊은 지휘자 선호의 최근 경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을 고수하는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1933년생)가 잡는다. 협연자는 로스트로포비치가 영명한 이 시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가 60세를 맞이해 누구보다 애정을 가져온 한국에서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의 진수를 선사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색조를 지닌 드레스덴 필의 향취, 일흔 다섯의 나이로 가장 원숙한 형태의 지휘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데 부르고스, 거장 첼리스트 시대의 마지막 주자 마이스키의 음악혼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차분하게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초청공연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래식 활성화와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뛰어난 연주단체와 아티스트의 공연을 통하여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 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가 궁정악단으로 시작해 지금도 드레스덴 국립극장의 오케스트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드레스덴 필(1870년 창단)은 궁정과 귀족의 후원 없이 유럽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오케스트라가 명운을 함께 해 비슷한 태생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자주 비교된다.

\*\*미샤 마이스키는 1990년 이래 수차례 내한공연을 가지면서 첼리스트 장한나를 세계 대에 진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등의 한국 가곡을 자신의 음반에 레코딩하는 등 한국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 *Dresdner Philharmonie*

6

화려함을 가린 깊은 색조, 사유됨이 포방할 수 없는  
육중한 동독 관현악의 품격

## 드레스덴 필하모니

Dresdner Philharmonie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국립극장)와 더불어 음악의 고도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1870년에 창단되었다. 처음에는 공연장의 이름을 따서 게베르베 오케스트라로 불리다가 1915년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문 오케스트라답게 수많은 거장들이 이 악단과 함께 했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작,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작 자연했고 1934년부터 파울 반 캠펜, 칼 슈리히트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1945년 이후 쿠르트 마주어, 귄터 헤르비히, 헤르베르트 케겔, 미셸 플라송 같은 정통 실력과 거장들이 음악감독으로 명멸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현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스페인의 명장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가 2004-5 시즌부터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장 쿠르트 마주어 역시 드레스덴 필하모니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현재 계관지휘자(Laureate Conductor)로 재임하고 있다.

음반은 주로 베를린 클래식(Berlin Classics)에 많은데, 특히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전집, 파울 반 캠펜 지휘, 빌헬름 켐프 피아노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 23(DG), 루돌프 마우어스베르거가 지휘하고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과 함께한 바흐 칸타타 등은 불후의 명반으로 꼽힌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공연장으로 유명한 쿨투어팔라스트(문화궁전)에서 연 80회 이상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드레스덴 시민의 자랑거리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집스러운 정통에 대한 집념, 사라져 가는 20세기적 지휘 스타일의 표본

##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

Rafael Fruhbeck de Burgos



라파엘 프뤼벡 데 부르고스는 1933년 9월 15일 스페인 부르고스에서 독일인 부친과 스페인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의 <데 부르고스>는 부르고스 출신 사람이라는 뜻이며 줄여서 부를 경우 <프뤼벡>으로 칭한다.

빌바오와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 작곡을 배웠고 독일 뮌헨 고등음악학교 지휘과로 유학을 떠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1959년 빌바오 심포니 상임 지휘자를 거쳐 1962년 서른의 나이로 스페인 국립관현악단 상임 지휘자에 올랐고 1975년 가을에는 몬트리올 심포니 음악 감독직에 오르면서 볼프강 자발리시, 주빈 메타 등과 함께 1970년대 지휘계의 신성으로 각광 받았다.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슈타츠 오페라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오스트리아 빈 심포니 수석지휘자를 지냈으며 유럽과 미국 굴지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로 명성을 드높였다. 1996년 11월 빈 심포니와 함께 내한해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빈 심포니의 장기를 여실히 보인바 있다.

일찍부터 라벨 관현악 작품에 일가를 이뤘고 파야 관현악곡집, 멘델스존 '엘리아', 모차르트 '레퀴엠',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비제 '카르멘' 음반은 20세기 오케스트라의 자취를 그대로 담은 명반으로 인정받고 있다.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로드리고 아랑페스 협주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데 로스 앙헬레스와의 스페인 명가집(名歌集) 등, 스페인 음악 연주에 있어서 프뤼벡이 보인 권위 있는 해석과 절도 있는 리듬감은 후세 젊은 지휘자들이 좀처럼 따라 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 있다. 현재는 이탈리아 RAI 국립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와 드레스덴·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Dresdner Philharmonie with Cellist Mischa Maisky | 7



# Mischa Maisky

로스트로포비치를 가슴 속에 묻고, 이 시대 남은 마지막 첼로의 장인

##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옛 소련의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태어난 미샤 마이스키는 1966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과 함께 로스트로포비치에게 발탁되어 그의 집에 기거하며 첼로를 배우며 연주자로서 화려한 출발을 하였다. 스스로 말하듯 대단한 행운아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몇 년은 불행으로 점철된 흑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2년여의 수용소 생활, 정신병원 입원, 그리고 마침내 누이가 사는 이스라엘로의 망명... 수용소 시절의 산물인 구레나룻은 훗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주목받는 파격적이지만 자유로운 의상은 획일화된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 내지 해방의 상징으로 통한다. 2년 여 수용소 생활동안 분신과도 같은 첼로와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는 1972년 서방세계로의 망명과 함께 그레고리 피아티고르스키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 연주 활동을 재개했다. 73년 피렌체에서 열린 카사도 국제 콩쿠르에서의 1위 입상과 같은 해 11월 윌리엄 스타인버그가 이끄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카네기 홀 공연의 성공적인 데뷔로 그는 국제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공연이 끝난 후 한 복지가가 선물한 첼로 도미니크 몬타나로 지금까지도 연주하고 있다.

마이스키를 가까이서 대해본 사람들은 그의 몸에 배어 있는 소년 같은 감수성과 순수함, 진지함과 겸손함을 이야기 한다. 그 스스로 "위대한 음악가의 작품을 연주할 때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늘 자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관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질곡의 삶과 예술을 대하는 진지함이 자연스레 물어 나는 그의 연주세계는 "삶의 비애와 고뇌를 승화시킨 인간 혼의 연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그가 연주하는 바흐, 베토벤, 슈만, 엘가, 생상스, 드보르자크 등의 조화로운 선율은 음영이 깊고 풍부하다. 일단 무대에 오르면 마치 주술사처럼 시종 음을 읊조리며 온 몸으로 연주해 청중들의 시선을 붙잡아놓는 마력을 지닌 마이스키, 그러한 그의 매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이번 공연에서도 여실히 보여 질 것이다.



## PROGRAM NOTE

###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Dvorak\_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죽음을 5개월 앞둔 브람스가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듣고서 "이런 첼로 협주곡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왜 생각하지 못 했을까. 만약 알았다더라면 나도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는 건데..."라고 했던 유명한 탄식의 말처럼 말로, 생상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곡들은 물론 고금의 첼로 협주곡들을 통틀어서도 기교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드보르작의 협주곡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사실 많은 작곡가들이 낯선 곳에 대한 여행이나 타지에서 생활을 통해 종종 영감을 얻어 기존 곡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지만 특히 드보르작의 경우처럼 풍성한 결실을 이끌어 낸 작곡가도 많지는 않으며 첼로 협주곡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수많은 작품으로 이미 널리 유명해진 드보르작은 1892년(51세)부터 뉴욕 국민음악원(American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New York) 초대원장으로 초빙되어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후 약 3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통하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아메리카'를 포함한 일련의 현악사중주들, 그리고 이 첼로 협주곡 등 명작들이 태어나게 된다. 당연히 드보르작이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작품들의 탄생도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드보르작의 미국 시절 작품들에는 이국땅의 낯선 풍경,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 조국의 땅내음에 대한 향수 등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 첼로 협주곡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작곡할 당시만 해도 처음 접하는 신대륙 아메리카의 신선한 정취와 거기에 살고 있는 흑인과 인디언들의 민속 음악에 생생한 매력을 느꼈고 그 요소들을 작품 속에 과감하게 담아내었다. 그러나 미국, 그것도 기계 문명의 대도시 뉴욕에서의 생활은 드보르작에게 소박한 보헤미아 전원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일으켰고 결국 그는 1894년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을 프라하와 비스카의 별장에서 보내게 된다. 이 작품은 미국 생활의 마지막에 작곡된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인 11월 8일 뉴욕에서 작곡에 착수, 이듬해 조국 보헤미아로 귀국한 이후인 1895년 2월 9일 프라하에서 완성되어 동향의 첼리스트인 하누스 비한(Hanus Wihan)에게 헌정되었다. (비한과는 드보르작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보헤미아 지방으로 같이 연주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비한에 대한 드보르작의 큰 '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악보를 받은 후 정성스레 쓴 비한의 카덴차를 드보르작이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초연은 1896년 3월 19일 런던 필하모니아 협회의 연주회에서 드보르작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첼로 독주는 당시 유명한 첼리스트였던 레오 스텐(Leo Stern)이 맡았으며 연주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비한은 1899년 빌렘 멩겔베르크의 지휘 아래 헤이그에서 이 협주곡을 처음 연주했으며 이후에 물론 많이 연주를 가졌다. 이 곡에는 드보르작이 사랑했던 요제파 체르마코바(Josefa Čermáková)에 대한 추억도 들어있는데, 작곡 당시 체르마코바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자신의 가곡 선율을 2악장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1895년 5월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데 슬픔에 빠진 드보르작은 초연이 있는 후에 프라하에서 마지막 4마디를 지우고 60마디를 덧붙이는 등 곡을 개작하기도 했다.

이 곡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짙은 민족적 정서에 있다. 드보르작이 평생토록 애정을 보인 보헤미아의 민속음악은 미국 인디언의 민속음악이나 흑인 영가와 리듬이나 선율 면에 있어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긴밀하게 융합하여 작품에 자연스럽게 흘러 넣었지만 드보르작은 결코 이 두 지역의 선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창작한 선율을 사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곡은 연주가 무척 까다롭기도 한데 이는 보헤미아적인 정열과 미국의 민요, 인디언과 흑인 음악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첼리스트는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를 펼쳐야 하며, 오케스트라는 섬세한 민족적 색채와 웅장한 합주를 조화롭게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협주곡과는 달리 독주부와 오케스트라가 대립보다는 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향악적인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2관 편성을 고수했던 것과는 달리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트롬본이나 튜바 등의 저음 금관악기를 추가하여 음폭을 증가시켰다. 첼로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드보르작이 이렇게 뛰어난 첼로 협주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 아일랜드 태생의 미국 작곡가 겸 첼리스트였던 빅터 허버트(Victor Herbert)의 첼로 협주곡 2번을 듣게 된 계기도 있었다. 과거나 지금의 애호가들에게는 여러 모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afael Fruhbeck de Burgos

### 제1악장 Allegro

소나타 형식, b단조. 낮은 음역의 현악기 반주 위로 어두운 저음의 목관악기가 곡 전체의 기본이 되는 유명한 제1주제를 연주하고 밝게 빛나는 호른에 의하여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부주제가 나타나며 서서히 관현악만으로 고조된 후 첼로가 등장하여 이를 반복한다. 이후 여러 개의 주제가 차례로 나타나 전개된 후 재현부는 부주제로부터 시작되며 코다 부분에서는 B장조의 당당하고 웅장한 관현악으로 마무리된다.

### 제2악장 Adagio, ma non troppo

G장조로 3부 형식. 1주제는 오보에와 비순의 부드러운 화음 위로 클라리넷이 연주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첼로가 이를 받아 음악을 발전시킨다. 중간부는 g단조로 전조되어 악상이 어둡게 바뀌는데 격렬한 투티로 시작하며 앞서 말한 요제파에 대한 추억에 드보르작 자신의 가곡 선율이 이어진다. 3부는 카덴차 풍의 독주첼로가 주제를 변주하는데 점차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더해지며 짧은 코다에 의해 사라지듯 끝을 맺는다. 미국땅 아메리카에서 먼 고국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전형적인 보헤미아적 악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첼로의 연주는 극히 서정적이다.

### 제3악장 Allegro moderato

자유로운 론도 형식, b단조. 긴 F#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 대의 호른에 의하여 단순하지만 장려한 주제가 제시되며 다른 악기로 옮겨져 발전하다 첼로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힘있게 연주된다. 격렬한 악상과 보헤미아적인 전원의 선율이 공존하며 곡의 마지막은 마치 숨을 고르듯 서서히 디미뉴엔도로 이어지다 론도 주제의 변형이 연주되며 활기차고 힘찬 결말을 맺는다.

##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Beethoven\_ Symphony No 5 in c minor Op.67*

서양음악 고금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곡 중 하나인 교향곡 5번은 대중적 인기는 물론이고 단 하나의 음표도 헛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상 유례가 없는 긴밀한 구성과 견고함, 통일감을 갖춘 완벽한 곡이다. 특히 5번은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뛰어 넘어 인간이 가진 희로애락의 감정까지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한 치의 오차 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이 곡은 3번이 완성되던 1803년에 구상되었으며 1804년에는 구체적인 스케치까지 그려 넣었다. 1805년부터 1808년까지는 베토벤 창작 시기 중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작곡가의 명성이 더욱 확고해지며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창작력도 강렬해지는 시기로 오페라 '피델리오'의 첫 판본, '열정' 소나타, 피아노협주곡 4번, '리주모프스키' 현악사중주 등 여러 주목할 만한 걸작들이 탄생하였지만, 불행하게도 타인과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귓병이 악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베토벤은 다임 백작의 미망인으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던 요제피네 폰 다임(Josephine von Deym)과의 사랑이 무르익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5번과 같이 격정적이고 투쟁적인 곡은 잠시 중단되고 부드러운 곡을 작곡하는데 힘쓰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베토벤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도 할 수 있으며, 1806년에 작곡된 4번 교향곡처럼 우아하고도 명량한 분위기의 곡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후 연애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다시 격렬한 곡들에 착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07년 작곡된 '코리올란' 서곡에서는 영웅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는 후일 베토벤의 음악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하여튼 1807년에야 5번 교향곡이 다시 작곡되기 시작하여 1808년 드디어 완성되었으며, 그 해 12월 22일 빈의 연주회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다. 당시의 공연은 교향곡 6번 <전원>, C장조 미사 중 글로리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악장, 베토벤 자신의 피아노에 의한 피아노협주곡 4번, 합창 환상곡 등이 연주되었는데 총 4시간에 이르는 거대한 공연이었다.

5번 교향곡은 '운명'이라는 부제가 더욱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는 주지하다시피 '영웅', '전원', '합창' 등과 같이 작곡가 자신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악장의 동기에 대해 묻는 제자 쉰들러(Anton Schindler)에게 '이렇게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 베토벤의 자신의 말처럼 이 곡에는 귓병의 악화 등 젊은 시절 베토벤이 좌절과 슬픔, 갈등 등 운명을 극복하여 확고한 자아를 확립하려는 승리와 성공의 환희가 열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c단조라는 조성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베토벤이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렬하고 영웅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특히 선호하던 조성으로 개인적 의도는 물론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ischa Maisky

5번 교향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머리의 4개의 음표, 이른바 '운명의 동기(모티프)'로 베토벤은 선율보다는 이 운명의 동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곡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짧은짧은짧은긴' 동기는 전악장에 걸쳐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나 곡을 일관성 있게 엮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단 5번 교향곡 뿐만 아니라 '열정' 소나타, 피아노협주곡 4번, 현악사중주 10번 '하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베토벤이 여러 곡에서 이를 시험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베토벤은 5번 교향곡을 작곡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고뇌 끝에 얻은 승리와 환희에 비중을 두었다. 이에 따라 1악장 첫 동기는 3악장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나고 또 4악장 재현부 직전에서도 나타나 전 악장을 단단히 결속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종악장의 '환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3악장 스케르초의 재현부를 자연스럽게 4악장과 연결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2관 편성을 고수하는 1, 2, 3악장과 달리 4악장에서는 1대의 피콜로, 1대의 콘트라파곳, 3대의 트롬본 등 악기의 종류를 증가시킴으로써 폭넓은 음향은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5번 교향곡은 전악장이 유기적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진정한 의미와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를 모두 경청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곡과 관련된 얘기 하나. 앞서 말했던 이 유명한 '운명의 동기'는 2차 대전 당시 BBC의 라디오 뉴스의 시작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승리(Victory)의 'V'가 모스 부호로 '· · · · ·', 즉 5번 교향곡의 '짧은짧은짧은긴' 동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실로 절묘한 선택이었음이 아닐 수 없다.

**제1악장 Allegro con brio**

소나타 형식. c단조. 1주제는 앞서 설명한 4음으로 이루어진 '운명의 동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악적 동기로 클래식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에서 차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2주제는 호른으로 도입되어 바이올린이 부드럽게 연주되는데 호른에 의한 주제 역시 바로 '운명의 동기'이며 2주제를 반주하는 저음의 움직임도 역시 이 동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 동기는 고집스럽게 반복되고 중복되어 조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시중일관 거의 1주제를 다루는 발전부에 이어 재현부로 들어가 잠시 오보에의 짧은 카덴차에 의해 긴장이 이완되기도 하다 1주제의 의한 장대한 코다로 이어진다.

**제2악장 Andante con moto**

Ab장조. 두 개의 주제를 사용한 변주곡이지만 각 변주에는 한계가 정해져있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변주로 악상의 변화가 무척 정묘하다. 1악장의 격렬했던 투쟁 후 이어지는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악장이며 위안을 주는 듯 분위기가 부드럽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저음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1주제와 클라리넷, 파곳 등 목관에 의한 2주제가 나타나 차례로 변주가 연주되다 경과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다시 주제를 변주하다 마지막 코다로 이어져 부풀어 오르면서 악장은 마무리 된다.

**제3악장 Allegro**

c단조의 스케르초(scherzo)로 3부 형식.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 의해 으스스한 1주제가 울리고 호른에 의해 '운명의 동기'가 변형되어 취급된다. 중간 트리오는 대위법적으로 전개되며 다시 1주제가 나타난 후 조용해지다 팀파니의 악주와 함께 소리는 조심스럽고도 신비하게 고조되어 나가는 데 점점 힘을 부풀려 폭발하는 것과 더불어 4악장으로 이어진다.

**제4악장 Allegro**

소나타 형식. C장조. 이 악장에는 오직 고뇌에서 환희로 이어지는 승리의 절정만이 존재하며 짙은 어둠을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한 악상이 전개되는 환상적인 악장이다. 금관에 의하여 제1주제가 f로 소리높이 울려 퍼지며 바이올린에 의해 춤을 추는 듯한 G장조의 2주제도 이어진다. 일대 클라이맥스를 구축한 후 후일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3악장의 주제도 잠시 회상된 후 마치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처럼 서서히 분위기가 고양되다 금관의 폭발과 함께 1주제가 빛나게 연주되며 재현부가 연결된다. 최후의 코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온갖 동기들이 조합되어 속도를 높이며 숨 막히게 고조되다 흥분의 절정 속에서 마무리를 고한다. 이 종악장의 거침없는 환희야말로 인류에게 실로 행복하기 그지없는 선물임이 분명할 것이다.  
글\_송진명(음악 칼럼니스트)

**■ GYEONGGI ARTS CENTER STAFFS**

- |                                                                                                                                                    |                                                             |
|----------------------------------------------------------------------------------------------------------------------------------------------------|-------------------------------------------------------------|
| <b>공연본부장</b> 이건왕                                                                                                                                   | <b>마케팅팀</b> 조경호(팀장)<br>허준성, 정희섭, 신광호, 김현정,<br>이병관, 박춘우, 오정민 |
| <b>공연기획팀</b> 조요한(팀장)<br>이상철, 김형성, 조연주, 손유리, 윤준오, 박소현                                                                                               | <b>예술단운영팀</b> 이종기(팀장)<br>최영진, 이선영, 우정호, 임선미,<br>정윤희, 심태은    |
| <b>무대기술팀</b> 김경수(팀장)<br>무대: 김현준, 어정훈, 이관영, 김한영<br>조명: 백기범, 이성구, 김신수, 김원식<br>음향: 김근성, 하병길, 정주현, 송효빈, 박선욱<br>기계: 김봉섭, 김봉근, 김창권<br>사진: 이은주<br>영상: 홍성민 |                                                             |

# NH NongHyup

Vision 2015와 함께 바뀌는  
농협의 새 얼굴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NH농협**,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가 되겠습니다

NH농협은 새롭게 탄생한 농협의 새 얼굴입니다

국민의 신뢰,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이란  
큰 뜻과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라는 희망찬 비전을 담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NH농협!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for Nature & Human* **NH** NongHyup